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 공동육아나눔터 계약 체결

합천군은 지난 20일 군수실에서 김윤철 군수, 이정임 여성단체협의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수탁기관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는 5년간 위탁운영하게 됐다. ‘다함께 돌봄사업’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8~10세 아동(초등학생)에게 상시·일시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김상홍기자

103 X 103 mm

합천군, 공동육아나눔터 위·수탁 계약

합천여성단체협의회 선정... 돌봄 사각지대 해소



합천군(군수 김윤철)은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수탁기관으로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로 선정했다.

20일 합천군은 군수실에서 김윤

철 군수와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 이정임 회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합천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합천군여성단체협의회는 다음달 10월 1일 개소 예정인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를 5년간 위탁운영하게 됐다.

‘다함께 돌봄사업’이란 돌봄이 필요한 만 8~10세 아동(초등학생)에게 상시 및 일시돌봄, 방과 후 프로그램 등 돌봄 서비스 제공으로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더불어 ‘공동육아나눔터 사업’은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 다양한 부모 참여형 프로그램 및 공간을 지원하고, 자녀돌봄 품앗이 구성을 통해 이웃과 함께 자녀를 돌봄으로써 지역돌봄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이다.

/여태동 기자

153 X 95 mm